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5호> 2018년 6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세계 온천지 서밋에서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발표 및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밋 선언에 따라 온천의 다양한 활용을 세계 각 온천지와 연계해 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럭비 월드컵 개막도 다가오며, 오이타시, 벳푸시는 5개국의 캠프지로 내정되는 등 앞으로는 관광 PR도 포함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제 교류 사업 등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What`s up에서는 보다 더 많은 분들과의 교류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타현 소식>

‘온천현 오이타 ㉮ 세계 온천지 서밋’ 개최

세계 각국 온천지의 수장 및 연구자가 한데 모여, 온천을 활용한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세계 온천지 서밋’이 5월 25일(금)~27일(일) 벳푸시 비콘플라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5일에는 국내 온천 지자체 수장이 모여 환경성이 주최하는 제3회 전국 온천지 서밋이 열렸습니다. 저녁에는 세계 온천지 서밋과 전국 온천지 서밋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환영 리셉션이 있었으며, 국내외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오이타현의 산해진미를 즐기셨습니다. 메인인 26일에는 국내외 온천지 대표와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유엔 세계 관광 기구 멤버인 요란다 펠도모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해외 온천지 대표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관광 분야, 의료·건강·미용 분야, 에너지 분야로 나뉘어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27일에는 익스커션으로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이타현내 온천을 활용한 지역자원 시찰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서밋에는 현내 대학 유학생들이 해외 참가자 통역으로 참가해주었습니다. 국내 미디어는 물론, 해외 미디어도 서밋의 모습과 현내 관광 자원 등을 취재하며, 내년에 있을 럭비 월드컵 및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오이타현을 더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환영 리셉션장 모습



▲기조 강연



▲사례 발표(프랑스)



▲관광 분야 분과회



▲관광 코스 시찰



▲에너지 코스 시찰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5호> 2018년 6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벳푸시죽세공전통산업회관 & 죽공예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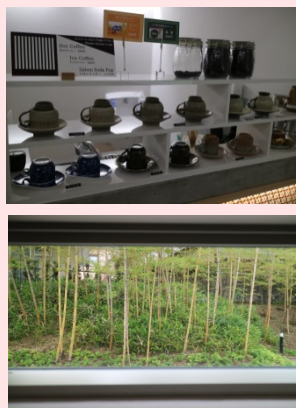
한적한 분위기 속에 자리잡고 있는 벳푸시죽세공전통 산업회관은 오이타현에서 유일하게 전통적 공예품으로 지정된 벳푸시 죽세공의 역사와 기법, 다양한 작품 등을 전시해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2M 높이의 죽세공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층 전시실 안에는 인간국보로 인정받은 죽공예가 쇼노 쇼운사이(生野祥雲齋) 등 죽세공 장인들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마다 창의적이고 정교한 디자인으로 보기만해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죽세공에 사용되는 대나무는 왕대인데, 오이타현은 왕대 생산량이 32%로 전국 1위를 자랑합니다. 이 왕대로 소품과 바구니 등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현재는 오이타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벳푸시죽세공전통산업회관은 죽공예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관 2층에 있는 공방에서 죽공예 체험이 가능하며, 이 곳 직원들이 교대로 체험 학습을 담당하고있다고 합니다. 체험은 대나무 방울 만들기과 꽃바구니 만들기로 나뉘며, 그 중 꽃바구니 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재료를 받고 설명에 따라

얇은 대나무를 엮거나 중간중간 물을 뿌려주면서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해가며 만듭니다. 대나무가 뻗어서 작은 바구니를 만드는데도 은근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빨개질 무렵, 점점 둥근 모습을 갖춰가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었습니다. 같이 체험을 했던 4명 모두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도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꽃바구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다시 죽세공 작품을 보니 이 큰 작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작품을 보게 되는 관점도 달라지고 더불어 장인의 대단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체험 비용 : 대나무 방울 400엔, 꽃바구니 1,000엔 (사전 예약 필수)



회관 입구 옆에는 지난 3월 말 새로 오픈한 기념품 샵과 카페가 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대나무로 만든 그릇, 액세서리 등 기념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 견에는 테이블이 놓여진 카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면 온타야키, 아리타야키 등 원하는 도자기 잔으로 마실 수 있고, 가로로 길게 나있는 창밖으로는 대나무 숲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진정되는 공간이었습니다.

